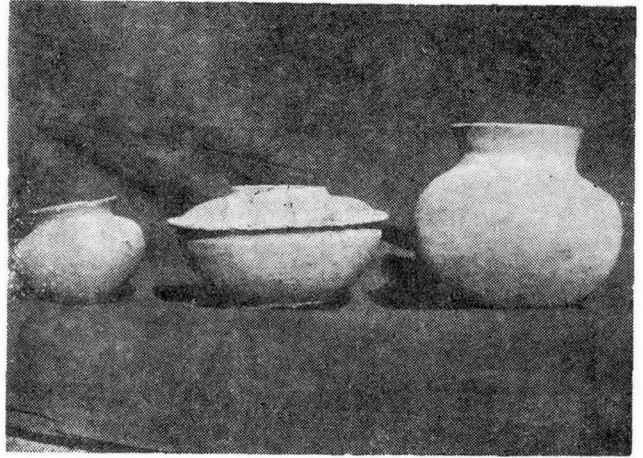


瓦製異形壺(青銅壺仿製?)



公州 牛城面 寶興里出土 胸部缺失로 復原不能
發見者 田 壽 鎭

그리 넓지 못한 法堂前庭 中央에는 靑石塔 一基가 現存하며 法堂 後便의 巨大한 黑質岩石에는 南西兩側面에 各一軀의 佛像이 彫刻되어 注目を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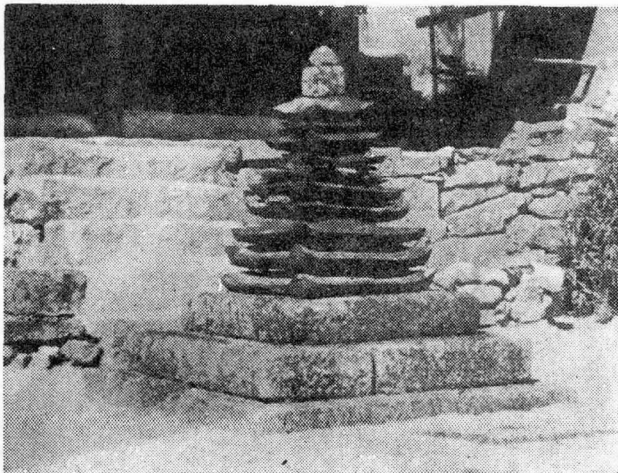
一、靑石塔

이 塔은 原位置로 國內에 遺存하는 他例(註)와 같이 塔身

桐華寺에서 西便山麓의 浮屠群을 지나 正北 八公山 主峰을 向하여 約三〇分 오르면 浮屠庵이고 여기서 다시 山峰을 따라 約四〇分 더 오르면 念佛庵에 다다른다. 山中腹에 位置한 念佛庵은 桐華寺에 屬한 庵子로서 比丘尼 三人이 住錫하고 있으며 이들에 依하여 小規模의 法堂 二棟과 寮舍 一棟도 잘 保存되어 雅淡한 境地를 이루고 있었다.

八公山念佛庵

鄭 永 鎬



을 缺失하였고 屋蓋만을 花崗岩地臺石 三段上에 累積하였다. 相輪部는 塔材와 石質이 다른 것이었고 當初의 相輪은 아니었다. 屋蓋石은 方形으로서 十層까지 남아 있으나 下部三層과 上部의 一層을 除外하고는 모두 破損이 甚하여 各層마다 落水面에 「돌」을 고여 屋蓋石破片의 失落을 豫防하고 있었다. 石材는 黑色粘板岩이며 地臺石外에는 他型의 基壇이 없고 蓮瓣等의 彫刻도 全無하다.

各屋蓋마다 二段의 받침이 角形으로 되어 있고 上面에는 一段의 塔身 받침이 있다. 屋蓋의 「두께」가 얇고 落水面은 平薄하며 四隅의 轉角이 急히 返轉하여 매우 輕快한 맛을 보이고 있는 點으로 보아 海印寺 願堂 庵 靑石塔系統에 屬한다 할 것이다. 實測值 全高 一五五cm 地臺石 三段 全高 五五cm 各段 幅 一六〇cm 一四〇cm 一一〇cm 第一層屋蓋 七五cm 第十層屋蓋 四〇cm로 遞減率이 적은 便이나 넓은 地臺石上의 小塔이어서 安定感을 보인다. 各屋蓋의 날카로운 線刻 其他 端雅한 落水面 等의 手法로 보아 拙作은 아니며 高麗에 들어서 더욱 流行된 靑石塔의 新例로 비록 完形은 아니나 稀貴한 遺材로서 잘 保存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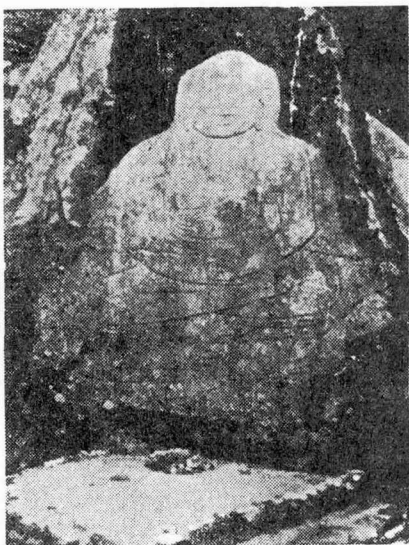
(註) 金山寺, 海印寺 願堂庵, 法住寺 福泉庵, 靈山 法華庵(本紙 第一卷 第三號 金正基氏 紹介)

牙山 神心寺(本紙 第二卷 第一號 鄭明鎬氏 紹介) 等의 靑石塔



一、南側面 磨崖佛像
巨大한 花崗岩의 自然的인 巖壁 南側을 平面으로 다듬고 全高 約 四·五cm의 佛像 一軀를 陽刻하였다. 이 佛像은 蓮華座 위에 跏趺한 듯하나 法衣가 下部로 길게 흘러내리고 衣線

과 蓮座의 彫刻으로서 兩膝을 덮었으므로 左右兩脚이 露出되지 않고 있다. 扇形의 寶冠을 쓴 面相은 方形에 가까우며 「눈」은 가늘고 眉間에는 白毫가 없다. 두 「볼」과 「턱」에는 「살」이 많아 鈍重함을 免치 못하며,



鼻間에 사이가 없이 붙어 있는 듯하여 畸形인 印象을 주고 있으나 兩耳를 거의 어깨 위까지 길게 刻하고 口, 唇에는 若干의 微笑를 띠어 오히려 恩威가 있어 보인다. 比較的 높은 寶冠은 線刻으로 三區하였으며 그 下部에는 瓔珞을 配列하고 三區 各面에는 忍冬文을 刻하여 寶冠을 裝飾하였고 冠을 쓴 밑에서 螺髮의 머리가 橫으로 一列이마 위를 돌고 있다. 「목」에는 三道가 돌고 法衣는 左肩에서 右腰까지 或 그 一部의 衣線은 蓮華座에까지 自然스럽게 흘러내렸다. 兩手는 舉手說法形으로 右手를 腹部에 平行으로 들어 寶相花(?)를 한 가지 잡고 있는데 左手의 中指와 拇指로 寶相花까지 끝을 잡고 右手의 拇指와 藥指로 줄기를 잡아서 右肩까지 花枝를 刻하고 花瓣은 그 위에 寶冠까지 光壁에 浮彫하였다.

兩손목에는 「팔지」를 끼었고 右腕에는 瓔珞과 花瓣으로 裝飾한 「腕釧」을 하였는데 그것을 結付시킨 두 줄의 끈이 背壁岩面에 浮刻되어 있다. 蓮華座의 蓮華는 寫實的으로 彫刻하였고 仰蓮形의 蓮莖오리마다 그 細部를 線刻 或은 浮刻하였다. 顔容의 鈍重함과 全體 畸形인 衣褶의 陽刻으로 보아 異例인 佛像이라 하겠다. 길게 刻面한 衣線을 下脚까지 길게 흘러 兩膝에 各配하고 左右蓮華座의 刻線과 잘 어울리어 調和있게 浮彫한 手法은 興趣를 끌며 磨崖佛의 稀貴한 遺例라 하겠다.

佛前에는 床卓石을 代身하여 切斷된 一片의 八角石燈竿石 위에 羅代的 作品으로 보이는 八角石燈中臺石 一枚를 올려놓아 注目을 끌었는데 前述한 靑石塔 一基가 同庵子 庭中에 遺存하는 點으로 보아 이들 石燈材 도 同寺 當初의 것으로 推定되었다. 이곳의 僧侶들은 이 石燈材에 對하여 그 由來等 全혀 아는 바가 없다 하는데 앞으로 他部分이 境內에서 發見될 것을 期待한다.

三、西側面 磨崖佛像

前記한 바 : 同一花崗岩 西側에는 全高約 四m의 坐佛을 線刻하였다.

이 佛像은 華奢한 仰蓮蓮座위에 結跏趺座하고 妙觀察智印을 하여 兩脚을 左右膝上에 올려놓은 吉祥坐의 阿彌陀佛이다. 頭部는 橫廣하며 머리는 削髮하였고 肉髻는 적은 便이다. 顔面은 矩形에 가까울고 白毫는 없다. 兩耳는 肩上 가까이 내려졌으며 鳳眼은 斜으로 가늘게 線刻되었고 口鼻는 厚刻하였다. 口唇에 若干의 微笑가 어렸으나 眉間이 뚜렷하지 못하여 南側面佛像과는 다른 印象이었다. 衲衣는 偏袒右肩으로 腹腰部에 단 돌렸는데 그 外部分은 全裸形이다.

蓮座는 前面에 蓮蕾를 上下로 配列하고 左右側에는 二、三重으로 配疊하였으며 蓮華座 밑에 雲形을 浮彫하여 天上世界에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線刻의 實例는 慶州 南山 三陵溪磨崖三尊佛(註)의 線刻像에서 볼 수 있으나 造成年代를 同時로 볼 수는 없다. 座高에 比하여 兩膝이 넓어서 安定感이 있으며 비록 畸異한 半裸形의 形式化한 線刻일지나 蓮座의 精妙한 手法이라든가 圖樣化한 寫實的인 影技의 「아이디어」가 注目되었다.

以上 兩佛은 造型上 相異點은 있으나 同一한 彫法으로서 羅未의 作品으로 推定되었는 바 今後 이곳의 諸佛蹟과 함께 再調의 課題가 될을 附言코자 한다.

[註] 慶州南山의佛蹟(朝鮮總督府) 圖版四〇、四一參照

百濟의 有紋女瓦

洪 思 俊

이 女瓦(삼기와)는 昨年 四月頃 扶餘邑 舊衙里 所在 금강여관(扶餘分館 西側門)으로 通하는 扶蘇山登道 左側 道路邊이며 博物館에서 五〇m 距離) 敷地를 整理하던 中 地下 二尺餘에서 蓮花文瓦片(軒瓦)과 其他 無文平瓦破片和 함께 出土된 것이다.

우리가 普通 보는 百濟의 女瓦에서는 裏面에 麻布文이 있고 表面은 無文이거나 間或干支銘이 있다. 그리고 瓦質은 灰色이고 木炭粉이 混合된 것이 多數를 點하고 있다. 그러나 紹介하려는 이기와는 色態가 灰白色



이고 木炭粉도 없으며 特히 石英(차돌)粒이 比較的 多量으로 包含되어 있다. 表面 全般에는 上·中·下 三段에 橫으로 四個處에 紋樣이 있고 그 上部에 雲文에 類似한 것들이 板刻畫에서 찍어낸 것 같다. 上·下兩段에는 四重菱形文이 陽印되었으며 그 內面에 忍冬文樣이 있다. 中段은 亦是 四重陽線으로 된 四重四角形內에 四瓣의 蓮華文이 陰刻하여졌다.

以上 異例의 平瓦에 紋樣이 있음은 從來에 보지 못한 瓦當인물이 곳에 밝혀둔다.

[尺數] 瓦 上部幅 三·一 cm 瓦 下部幅 二八·五 cm

瓦 長 四一·七 cm 瓦 厚 一·五 cm